



마스크 오프 시대, 매트 립이거나 글로시 립이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가장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얼굴 부위.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 바로 입술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메이크업을 할 때 여성들이 크게 공을 들이는 부분도 바로 립 메이크업이다.

립 메이크업 트렌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텁스러운 광택이 도는 글로시 립이거나 보송보송 벨벳 텍스처의 매트 립이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본인의 입술 모양과 두께를 고려해 더욱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시도하면 된다. 코로나 19를 벗어나며 마스크 오프 시대를 맞아 '싱글플러스' (m. thesingle.co.kr)가 립 메이크업 방법을 소개했다.

■ 보송보송, 매트 립



구름처럼 폭신한 텍스처의 피그먼트가 입술에 포근하게 얹어지는 듯한 매트 타입의 립스틱. 세련되면서도 모던한 기운을 더하는 제형 특유의 느낌 덕분에 어떤 룩에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린다.

다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입술 상태라면 그저 지저분해 보이기 일쑤. 매트한 립스틱을 바르기 전, 립 전용 스크럽을 사용하거나 바셀린을 묻힌 면봉으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다. 그 다음, 보송한 텍스처의 틴트 혹은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풀립으로 바르거나

나 한쪽에만 색을 입혀 퍼트리듯 그레이션 하는 식으로 터치해 볼 것.

또렷한 색감을 자랑하는 컬러를 선택했을 때에는 입술 라인의 경계를 또렷하게 하는 편보다는 스며징하듯 톡톡 두드리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 생기 가득, 글로시 립



글로시한 텍스처의 립 제품은 단독으로 빌라도 예쁘지만 립스틱 위에 덧바르거나 다른 컬러의 글로스와 믹스할 때에 좀 더 오묘한 느낌을 낸다.

먼저 입술이 얇아 고민이라면 메탈릭 한 텍스처를 택하거나 두 가지 컬러의 글로스를 믹스해 볼륨감을 살려볼 것. 반짝이는 시며 입자들이 빛에 따라 반사되면서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낸다. 립스틱과 글로스를 믹스할 때는 입술 안쪽으로 립스틱을 바른 후 바깥쪽으로 컬러를 블렌딩한다. 그리고 글로스를 가볍게 덧바르면 과즙미 넘치는 입술로 변신이 가능하다.

윗 입술산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 립스틱을 바른 후 윗 입술에 가장 높은 산 부분에만 글로스를 덧발라 라인을 잡아주면 한층 입체적이고, 입술에서도 가장 도톰한 부위에 글로스를 얹어주면 볼륨감이 배가된다.

사진=싱글플러스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H MART 옆

HOWARD DRUGS

• 깨끗한 시설 • 저렴한 가격 • 친절한 서비스
당뇨 / 고혈압 / 콜레스테롤 상담 전문

세리토스, 실비치, 싸이프러스, 룽비치, 하와이언 가든, 다우니

30년 병원 임상경험

*노 약사에게 전화주세요



약사 노혜경
Pharm.D.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하워드 약국

562-866-6011

20141 Pioneer Blvd. Lakewood, CA 92715

JSK 건축, 플러밍



물
내
요
:

Lic #1049049 재해복구 전문업체

제이김

714.249.5469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려 KUNI 횟집으로 오세요!!



(714) 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SASHIMI HOUSE

OPENING HOURS

Mon-Sat: 3PM-12AM

Sun: 3PM - 10:30PM